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김수영

오산대학교 뷰티&코스메틱계열 교수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Self-Confidence in Job-Seeking

Su-Young Kim

Professor, Division of Beauty & Cosmetic, Os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서울, 경기도의 뷰티전공 2년제 대학생 3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자신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각 변인들 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대학생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자신감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전공만족이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평가, 문제해결, 목표선택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셋째, 전공만족이 취업자신감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자신감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 전공만족,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목표선택, 취업자신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confidence. The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analysis by surveying 335 two-yea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in Seoul and Gyeonggi-do.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for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confidence using SPSS 26.0,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 between each variabl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was confirmed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confidence. Second, as the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self-efficacy,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were confirmed in self-evaluation, problem-solving, and goal selection. Fifth, it was confirmed that major satisfac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confidence. Fourth, it was confirmed tha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job confidence.

Key Words :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Goal-Setting, Self-confidence in getting jobs

1. 서론

인적자원의 육성은 지식과 가치를 기반으로 대학의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인적자원개발은 학문적으로 학문과 실무분야이며, 인적자원개발유형의 정의는 실무

분야의 범주에 포함되고, 인적자원개발의 개념은 성과와 학습이 핵심이다[1]. 따라서 개인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인적개발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대학의 교육

*Corresponding Author : Su-Young Kim(ksy@osan.ac.kr)

역량에 대한 관심은 종래의 교과목 학업성취도에서 심층적인 대학생의 성장과 발달의 변화를 주도하는 노력으로 나타난다[2].

대학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전공 선택이 선행되어야 하고, 전공 선택은 학생들의 적성과 자신감 및 흥미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 본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전공 선택은 평생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를 해야 할 것이다[3]. 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전공 선택을 하고 취업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전공 학과는 전문성 있는 전공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게 되고, 취업준비를 위해 다양한 스펙을 쌓기 위한 준비로 취업준비 활동이 대학생활에서 필요하다.

특히 헤어전공대학생은 전공 선택을 본인의 재능과 흥미를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는 학교 만족 및 전공에 대한 적응 만족이 매우 중요하며, 직업선택 동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전공 선택은 자신의 전공에 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이해와 가치관 및 성격, 흥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결정요인이기도 하다[5].

대학전공이란 학생이 상급교육 기관인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자 하여 선택한 학문이며, 만족이란 개인의 주관적인 모자람 없이 충분한 감정 상태를 말한다. 다시 정리하면 전공만족이란 개인의 전공을 평가하는 산물이며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공부하여 주관적으로 느끼는 즐거운 감정과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결합된 감정 상태라고 정리할 수 있다[6]. 전공에 대한 만족감은 대학생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과 대학생활의 적응을 넘어 재학을 지속할 지에 대한 여부 등 구체적인 행동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전공 만족은 개인차원을 넘어 대학 자체평가의 주요지표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공몰입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7].

부 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은 진로영역 중에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 다양한 진로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되어왔다. 진로발달과업은 기본적인 인성 변인들과 관계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완벽주의가 진로분야와 밀접한 관계다.

대학생들은 장래와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이다. 자신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첫 선택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

만, 진로결정 및 행동 실천의 부족 등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8].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은 더 많이 하지만, 구체적 계획 수립과 실천행동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진로 행동으로 바로 옮기지 못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는 방향성이 진로결정수준이다[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정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신념 및 유능감을 의미하기에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진로경험을 획득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과제 완성에 필요한 행동과 계획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라고 정의한다[10].

취업자신감 Chung & Oh [11]은 학습자가 투여해야 하는 노력이 목표 획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학습자의 관점으로 보는 주관적 신념이다. 대학생들의 취업자신감이 낮을수록 졸업 후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 걱정과 두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므로 취업에 대한 인식과 취업자신감이 대학교육을 기반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교육정책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대학교육역량강화에 적극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실업의 해소는 거시적으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의 변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미시적으로 청년들의 구직형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취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12].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자신감을 알아봄으로써 취업을 목표로 전공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에게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취업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전공교육프로그램으로 전공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 2년제 대학의 교육과제인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학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일련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2.1.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 경기도의 뷰티전공 2년

제 대학생 335명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주 동안 진행하였고, 질문지는 총 340부를 배부하여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33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사회과학 통계패키지(SPSS) 26.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Cronbach's α), 사후검증(Scheffe's)을 실시하였으며, 전공만족과 진로결정 자아존중감 및 취업 만족감의상관성을 알아 보기위해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통계패키지 26.0 version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2.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2년제 미용전공대학생 335명을 조사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와 같다. 성별은 남자 53명(15.8%), 여자 282명(84.2%)이고, 학년은 1학년 180명(53.7%), 2학년 155명(46.3%)이다. 전공은 헤어 전공 140명(41.8%), 피부전공 132명(39.4%), 네일 전공 35명(10.4%), 메이크업 전공 28명(8.4%)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tegory	Frequency(N)	Percentage (%)	
gender	male	53	15.8
	female	282	84.2
	Total	335	100.0
Grade	Grade 1	180	53.7
	Grade 2	155	46.3
	Total	335	100.0
Major	Hair Major	140	41.8
	Skin major	132	39.4
	Nail major	35	10.4
	Makeup major	28	8.4
	Total	335	100.0

3. 분석결과

3.1 전공만족의 측정도구와 타당도 및 신뢰도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을 위한 측정도구 Yoo [13]의

제시한 14문항을 사용하여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Table 2와 같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2552.813$ ($p < .001$)으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910으로 나타나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켰으며,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2개의 요인 수업만족, 교과만족의 하위요인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수업만족 .921, 교과만족 .783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915으로 나타났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Table 2. Major satisfaction

Factor	Component				
	1	2	communality		
Question9	.797	.257	.701		
Question14	.796	.130	.651		
Question10	.787	.184	.654		
Class Satisfac	Question12	.738	.248	.606	
tion	Question13	.738	.147	.566	
	Question6	.723	.270	.596	
	Question11	.714	.190	.546	
	Question8	.711	.338	.620	
	Question7	.708	.365	.635	
Subject Satisfac	Question2	.090	.849	.728	
	tion	Question1	.127	.792	.643
		Question3	.273	.663	.514
		Question5	.443	.565	.516
		Question4	.311	.536	.384
Eigenvalue	6.830	1.528			
Variance (%)	48.788	10.917			
Cumulative (%)	48.788	59.704			
Cronbach's α	.921	.783			
Total Cronbach's α	.915				
KMO = .910, $\chi^2=2552.813$, $p < 0.001$					

3.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측정도구와 타당도 및 신뢰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 분석한 결과 요인 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이며 Table 3와 같다. 요인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한 직각회전인 베리맥스 방식이 사용되었다. 요인 적재량은 .05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적용하였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Bartlett의구성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1256.382$ (

p<.001) 으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변수들 간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813으로 나타나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가정을 만족시켰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13문항 중 요인 적재치 .05를 충족하지 못한 9번 문항을 제거한 후 12문항의 3개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자기평가, 문제해결, 목표선택의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자기평가 .789, 문제해결 .789, 목표선택 .73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 값은 .814으로 나타났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Table 3.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Factor	Component			communality
	1	2	3	
Question2	.833	.032	.051	.697
Self-Evaluation	.773	.095	-.020	.606
Question3	.729	.001	.076	.537
Question6	.648	.131	.232	.491
Question4	.548	.220	.106	.359
Question5	.528	.199	.370	.456
Problem Solving	.063	.790	.193	.665
Question12	.086	.746	.173	.593
Question13	.096	.734	.118	.561
Question10	.159	.728	.081	.561
Goal-Setting	.172	.129	.860	.786
Question8	.126	.120	.834	.725
Eigenvalue	4.037	1.951	1.222	
Variance (%)	31.054	15.009	9.397	
Cumulative (%)	31.054	46.063	55.460	
Cronbach's α	.789	.789	.736	
Total Cronbach's α	.814			
KMO = .813, $\chi^2=1256.382$, $p<0.001$				

3.3 취업자신감의 측정도구와 타당도 및 신뢰도

취업자신감의 측정도구 Lee & Cha [14]는 제시한 3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Table 4와 같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421.017$ ($p<.001$)으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705로 나타나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가정을 만족시켰으며, 요인분석에 적합함이 확인된 하위요인 신뢰도(Cronbach's α) 값은 취업자신감 .837로 나타나,

통계적 수용 가능한 내적 일치도를 보였다.

Table 4. self-confidence in getting jobs

Factor	Component		
	1	communality	
self-Confidence in Getting jobs	Question2	.897	.804
	Question1	.887	.787
	Question3	.824	.679
Eigenvalue	2.271		
Variance (%)	75.704		
Cumulative (%)	75.704		
Cronbach's α	.837		
Total Cronbach's α	.837		
KMO = .705, $\chi^2=421.017$, $p<.001$			

3.4.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취업자신감의 상관관계

뷰티전공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자신감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Table 5와 같다.

전공만족의 교과만족($r=.591$), 교과만족이 자기평가($r=.371$), 문제해결($r=.234$), 목표선택($r=.274$), 취업자신감($r=.27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자기평가는 문제해결($r=.311$), 목표선택($r=.349$), 취업자신감($r=.441$), 문제해결은 목표선택($r=.324$), 취업자신감($r=.394$), 목표선택은 취업자신감($r=.337$)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Table 5. The cor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confidence in major satisfaction

	CS	SS	SE	PS	GS	SC
CS	1					
SS	.591**	1				
SE	.371**	.361*	1			
PS	.234**	.280**	.311**	1		
GS	.274**	.240**	.349**	.324**	1	
SC	.275**	.329**	.441**	.394**	.337**	1

** $p<.01$

CS: Class Satisfaction, SS: Subject Satisfaction, SE: Self-evaluation, PS: Problem Solving, GS: Goal-Setting, SC: Self-Confidence in Getting jobs

3.5.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는 D-W 값은 1.960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53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이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계수(R)은 .410이었으며 결정계수(R²)가.168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16.8%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33.635,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업만족(β =.243, t =3.919, p <.001), 전공만족(β =.217, t =3.493, p <.01)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 Table 6을 확인하였다.

Table 6.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self-evaluation

	B	SE	β	t	Sig	T	VIF	
C	2.333	.191		12218	.000			
Self-evaluation	CS	.221	.056	.243	3.919	.000	.650	1.538
	SS	.205	.059	.217	3.493	.001	.650	1.538

R=.410^a, adj R²=.168, F=33.635, p<.001, D-W=1.878
CS: Class Satisfaction, SS: Subject Satisfaction,

3.5.1 전공만족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는 D-W 값은 2.160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53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계수(R)은 .292이었으며 결정계수(R²)가.086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8.6%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15.521, p<.001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업만족(β =.106, t =1.626,

p >.05), 교과만족(β =.217, t =3.336, p <.01)로 전공만족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 Table 7을 확인하였다.

Table 7.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problem solving

	B	SE	β	t	Sig	T	VIF	
C	1.913	.248		7.718	.000			
PS	CS	.119	.073	.106	1.626	.105	.650	1.538
	SS	.254	.076	.217	3.336	.001	.650	1.538

R=.292^a, adj R²=.086, F=15.521, p<.001, D-W=2.160
PS: Problem Solving, CS: Class Satisfaction, SS: Subject Satisfaction,

3.5.2 전공만족이 목표선택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이 목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는 D-W 값은 1.960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53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이 목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계수(R)은 .290이었으며 결정계수(R²)가.084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8.4%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15.293, p<.001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목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업만족(β =.204, t =3.125, p <.01), 교과만족(β =.119, t =1.832, p >.05)로 나타나 수업만족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 Table 8을 확인하였다.

Table 8.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goal selection

	B	SE	β	t	Sig	T	VIF	
C	1.957	.294		6.661	.000			
GS	CS	.271	.087	.204	3.125	.002	.650	1.538
	SS	.165	.090	.119	1.832	.068	.650	1.538

R=.290^a, adj R²=.084, F=15.293, p<.001, D-W=1.960
GS: Goal-Setting, CS: Class Satisfaction, SS: Subject Satisfaction,

3.5.3 전공만족이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이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는 D-W 값은 1.809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 1.538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이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계수(R)은 .344이었으며 결정계수(R²)가.118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11.8%로 나타났다. 또 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22.280,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업만족($\beta=.124, t=1.945, p>.05$), 교과만족($\beta=.256, t=3.999, p<.001$)로 나타나 전공만족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 Table 9를 확인하였다.

Table 9.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job confidence

	B	SE	β	t	Sig	T	VIF	
C	1.738	.271		6.416	.000			
SC	CS	.156	.080	.124	1.945	.053	.650	1.538
	SS	.332	.083	.256	3.999	.000	.650	1.538

$R=.344^a, adj R^2=.118, F=22.280, p<.001, D-W=1.809$

SC: SC: Self-Confidence in Getting jobs, CS: Class Satisfaction, SS: Subject Satisfaction,

3.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regression) 결과이다. 결과는 D-W 값은 1.784로 2에 가까워 변수들 간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VIF 값은1.176-1.199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계수(R)은 .534이었으며 결정계수(R²)가.286로 나타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설명력은28.6%로 나타났다. 또 한 회귀모형의 적합도 분산분석 결과 $F=44.103,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하게 나

타나 회귀식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평가($\beta=.312, t=6.129, p<.001$), 문제해결($\beta=.256, t=4.959, p<.001$), 목표선택($\beta=.147, t=2.870, p<.01$)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 Table 10을 확인하였다.

Table 10.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job confidence

	B	SE	β	t	Sig	T	VIF	
C	.430	.274		1.571	.117			
SC	SE	.430	.070	.312	6.129	.000	.834	1.199
	PS	.278	.056	.250	4.955	.000	.850	1.176
	GS	.138	.048	.147	2.870	.004	.826	1.210

$R=.534^a, adj R^2=.286, F=44.103, p<.001, D-W=1.784$

SC: Self-Confidence in Getting jobs

SE: Self-evaluation, PS: Problem Solving, GS: Goal-Setting

4. 고찰 및 제언

대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목적으로 다양한 전공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학생만족은 교과만족과 교수에 대한 만족, 교우 및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 등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중 전공만족에 대한 연구[15-17]는 대학생활적응과 직업가치관 및 졸업 후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에 전공만족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에 적용해야한다. 또한 2년제 대학평가의 중요한 역할인 졸업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전공이 진로를 결정하는 중심이 되어야한다.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관한 연구[18,19]는 보건행정 전공 대학생들도 전공만족이 높은 학생이 진로결정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교수와 학교 모두 협력하여 특성에 맞는 가장 적합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연구결과로 보아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연구[20-22]은 자기효능감이 높일수록 진로태도와 성숙도 및 진로장벽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는 결과로 보고 되고 있기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관한 다양한 연구

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취업자신감에 관한 연구[23,24]은 학교의 지원이 많아질수록 학생들은 취업준비를 위한 행동은 높아지고, 취업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취업자신감이 떨어진다. 전공만족에 관한 연구 Kim [2]은 개인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하고 업무환경 자신감과 면접능력 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전공만족이 취업자신감에 통계학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차별성을 가진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전공만족도와 자기효능감을 높여 취업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자신감 향상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취업자신감에 통계적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둘째, 전공만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으로 자기평가, 문제해결, 목표선택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셋째, 전공만족이 취업자신감에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넷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취업자신감에서 통계적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은 체계적인 교육과 전공만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이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전공만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REFERENCES

[1] P. G. Baek & H. S. Lee.(2009). An Exploratory Research on Identiti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Using Concept Analysi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1(3), 201-228.

[2] H. Y. Kim. (2021). A Study on the Effects of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Aviation Service on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Confidenc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1(3), 89-113.

[3] D. K. Lim, H. S. Kwon & W. J. Oh. (2016). The

Influence of Major Selection Motive on Major Satisfaction, Instruction Participation, Employability, Employment Strategies, Major Hope for Employment - In case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Tax and Accounting -.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6(4), 85-109.

[4] S. H. Jung. (2021). The Association Between Major Selection Motive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air: the Mediating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6(2), 133-140. DOI : 10.9708/jksoci.2021.26.02.133

[5] S. H. Jin & K. S. Kim. (2019). The Influence of the Major Choice Motivation, Satisfaction in Major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n College Students: Focused on the Department of Airline Servic.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Studies*, 21(3), 303-319.

[6] M. H. Jeong & W. H. Lee. (2019). The Effect of Education Service Quality, Major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and Job Preparation Behaviour of Undergraduate Airline Service Students. *Northeast Asia tourism research*, 15(2), 1-25.

[7] S. H. Jeong. (2021). Th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on Major Commitment and Moderation Effect of Self-Leadership of Secretarial Studies Major.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30(1), 5-27.

[8] J. H. Kim, B. Y. Choi. (2016). Analysis 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4(1), 25-42.

[9] I. S. Baek & K. S. Jung. (2018).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Employabil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11), 457-477.

[10] E. W. Chon. (2013). Design-based Research on College Students' Career Education Program - centering around the Effects on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ollege Student Common Problem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3), 103-122.

[11] E. K. Chung & M. D. Oh. (2019). The Effect of NCS based Education Service Quality on Student's Loyalty to College and Self-confidence in Getting Job. *The Journal of the Korea*

- Contents Association*, 19(8), 584-597.
DOI : 10.5392/JKCA.2019.19.08.584
- [12] C. Y. Jun. (2013).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on Career Stres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earching Efficacy -.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0(1), 1-14.
- [13] J. S. Yoo. (2019).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 Focusing on undergraduates majoring in Airline Service -. *Journal of th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7(2), 3-27.
- [14] H. E. Lee & J. B. Cha. (2020). The Effect of Student-Faculty Relationship Quality on Educational Satisfaction, Career Aspirations, and Self-confidence in Getting Job.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10(3), 71-90.
- [15] H. Y. Ko & K. N. Kim. (2020). A Study on Effect of Culinary Education Environment on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 Focused on the Culinary Art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23(3), 249-269.
- [16] M. X. Xu, Y. J. Jung & H. J. Kim. (2021). The Effects of Motives for Major Choose of Chinese Student Majoring in Dance on Major Satisfaction, Major Commitment and Career Decisions. *Korean Journal of Dance*, 21(1), 13-27.
- [17] J. Y. Yun. (2014). A Study on College Life Adjustment of Juni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23(2), 111-132.
- [18] H. S. Lee. (2019). Impact of Majo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on the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e Behaviors :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Mediating Facto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7), 359-368.
DOI : 10.14400/JDC.2019.17.7.359
- [19] B. J. Seo. (2021).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9), 217-230.
- [20] M. S. Kwak. (2018).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Uncertain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concept clarity and Career Insight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50(1), 151-177.
- [21] M. J. Kim & S. Y. Park. (2017). The Relation between General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Career Barrier: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30(1), 163-181.
- [22] J. H. Yoon & J. Y. Choi. (2020). Effect Analysi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7(2), 119-139.
- [23] H. S. Choi, Y. S. Lee & J. C. Ha. (2011). A study on the impact of stress on self-confidence in job-seeking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2(2), 313-322
- [24] H. L. Yang. (2017). A Study on the Relations of Self-confidence in Getting Jobs, College Supports, Job-seeking Stress, and Preparation for Getting Jobs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cience.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15(1), 185-196.

김 수 영(Su-Young Kim)

[정회원]



- 2011년 8월 : 성신여자대학교 피부비판관리학과(석사)
- 2015년 8월 : 건국대학교 향장생물공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오산대학교 뷰티 & 코스메틱계열 조교수

- 관심분야 : 피부미용, 화장품
- E-Mail : ksy@osan.ac.kr